



◇흥천사 감로탱화 좌측 하단부에 그려진 먹살을 붙이고 싸우는 학생들의 모습. 혹시 한 국학생들과 일본학생들의 다툼이 아닐까?



◇1939년에 제작된 흥천사 감로탱(192×292cm).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에 따른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기존 감로탱에서 사용한 도상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창출했다. 이 감로탱에는 전차, 전봇대, 전화기, 양복을 착용한 인물 전대에 볼 수 없었던 20세기의 풍경들이 묘사돼 있다.



◇코끼리가 조련사의 채찍에 따라 묘기를 부리고 있다. 무 대 한편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있는 순사와 관중들. 틀에 선그라스와 중절모를 쓴 신사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중생의 번뇌 · 아픔 담은 새로운 시도



◇수원 용주사 대웅부전에 봉안된 감로탱화 2002 한·일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신장들 상단 오른쪽에 축구공을 삽입했다.

‘탱화의 변신’ 어떻게 볼까?

일반적으로 탱화하면 자애로운 자태의 불 · 보살과 칼과 도끼, 비파 등을 들고 눈을 크게 부릅뜬 사천왕의 모습을 연상한다. 그러나 최근 관음사를 비롯한 21세기형(?) 최신탱화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대중에게 좀더 친숙 하다가가고 있다. 탱화의 변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그 시대 상황 표현... 불심 일으킬 것 신장 지물엔 상징성... 단순흥미 지양”



◇대구 관음사 대웅전에 봉안된 신중탱화(3.2×2.7m). 호법신장들 손에 쥐어진 노트북, 휴대전화, 미 사일, 방독면, 비행기 등이 이색적이다.

▷ 탱화란? 탱화란 본래 부처님이나 보살의 초상, 혹은 경전의 내용 등을 그려 벽에 거는 그림을 말한다. 탱화는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이전에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때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았다. 그러나 조선조 배불정책에 의해 경직되고 도식화된 모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불교의례의 특징상 법당 상단에는 불 · 보살의 모습을 담은 후불화를 봉안하며, 중단에는 부처님과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의 모습을 담은 신중탱화를 봉안한다. 또 한편에는 감로탱화를 봉안하는데, 감로탱화에는 주로 조상숭배의식을 비롯한 중

생들의 속세 일상과 지옥의 고통 등이 그려진다. ▷ 각시대 중생상을 반영하는 탱화 탱화 속에는 시대상황이나 중생들과 함께 고민하는 불교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신장이 휴대전화 등 최첨단기기를 들고 있는 신중탱화를 봉안한 우학스님(관음사 주지)은 “과거에 신장들은 칼과 도끼, 비파 등으로 중생들을 괴롭히는 악귀와 고통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미사일폭격과 각종 생체 · 화학전이 난무한 현대에 이러한 기물들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다”며 “이런 고전적 형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어렵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탱화의 변신은 그 동안 고답적이고 정제된 미술로 평가받던 불교미술에 대한 인식전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본질불의 신앙적 성격을 구체화하는 후불화를 제외하고 부처님과 불법을 옹호하는 호법신장 모습을 담은 신중탱화와 제례의식 등 생활종속을 담은 감로탱화는 수요의 대상과 시대상에 따라 그 내용과 지물이 변화되어 왔다. 특히 조선조에 성행한 감로탱화는 육도중생의 묘사기법과 표현양식에 있어 각 시대의 중생상을 솔직히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의 대표적인 흥천사의 감로탱화를 살펴보면 전기와

전절 등 신식문물의 도입과 그로인해 가중되는 중생들의 혼란과 고통이 고스란히 표현해 놓고 있다. 탱화는 사회상 반영뿐 아니라 새로운 도상의 창출과 서양화법 도입 등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수원 용주사와 대구 관음사, 광주 선덕사 탱화 등이 그 계보(?)를 잇고 있다. ▷ 엇갈린 평가 관음사 신중탱화를 제작한 박소현 씨 등 불화작가들은 “신중 · 감로탱화의 경우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당시대 중생들의 모습을 담아왔다”며 “속세의 번뇌와 중생의 아픔을 고스란히 표현한 현대적 탱

화가 따로 신도들의 불심(佛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은 “감로탱화의 경우 종속과 생활상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이나 신중탱화에서 예배의 대상인 신장들의 지물을 휴대폰이나 미사일 등의 현대기기로 바꾸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며 “신장들이 들고 있는 검, 도끼, 비파 등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중생의 무명을 끊고 지혜를 구하는 등 불교적 상징성이 있는 것이므로 단순한 흥미로 쉽게 바꾸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 법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람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